

# 용산구, 침체된 골목상권 3곳 선정 맞춤형 지원

브랜드화·축제·홍보 등 상권별 맞춤 사업 추진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으로 방문객 유입 확대

서울시 용산구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6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단계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

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이화길 상권 △두타밭위골목 상권 △용마루길 상권 등 3곳이다.

구는 선정된 각 상권에 1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상권별 브랜드화 전략 수립 △골목상권 축제 개최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각 골목의 특색을 살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권별 추진 방향도 차별화했다. 이화길 상권은 상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두타밭위골목 상권은 '후암마살·남산 아래

두타밭위 마을, 골목산책 축제'를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용마루길 상권은 골목의 특성을 반영한 '순환형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방문객 유입 확대에 나선다.

선정된 3개 상권은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당 상권이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권은 판로 확대와 판촉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유가



용산구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2024년 박희영 구청장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용산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양천구 미래교육센터가 자율주행·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팍드론 경진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체험형 경연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 양천구 'AI·자율주행·팍드론' 대회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서울시 양천구가 'Y교육박람회 2026'과 연계하여 관내 3개 권역 미래교육센터에서 인공지능(AI)·자율주행·드론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센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미래교육센터 경진대회'는 스마트양천, 목동, 넓은들 등 권역별 센터를 'Y교육박람회'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각 센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미래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16일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생성형 AI 포스터 경진대회(스마트 양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자율주행 코딩 경진대회(목동) △팍드론 경진대회(넓은들)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구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 기술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안산도시공사가 '장애인의 날' 하모니콜 바우처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포스터. 안산도시공사

## 안산도시공사 '장애인의 날' 하모니콜 바우처택시 무료

경기도 안산도시공사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하루 동안 무료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하모니콜(60대)과 바우처택시(80대) 등 총 14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신부 △5세 미만 아동 등 동반한 보호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무료 운행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의 날 당일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요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하모니콜 이용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대표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정성희 교통지원부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을 통해 최근 4년간 총 3686건의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skyedaily.com

# 서초 '양재아트살롱' 10만 인파 몰려... 봄 상권 활력

벚꽃마켓 매출 2억2000만 원... 전년 대비 70%↑  
수공예 판매·버스킹·체험 결합 축제형 콘텐츠

서울시 서초구는 4월 벚꽃 시즌 양재천 일대에서 운영 중인 '양재아트살롱'에 약 10만 명이 몰리며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양재천 영동1교부터 수변무대 구간과 양재천길 일대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양재아트살롱'은 서초여성일자리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아트마켓이다. 소상공인과 공예작가, 청년기업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과 생활소품을 전시·판매한다. 자연경관과 인근 상권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체험과 공연이 더해진 축제형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벚꽃 시즌에 맞춰 이달 초 '벚꽃마켓'으로 운영된 기간에는 약 1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현장에서는 △즉석 노래

자랑 '양재천노래방' △8m 규모 마스크트 '양재르음 아트벌룬'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됐다. 참여 소상공인 매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판매자 모집에도 정원의 11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구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매주 주말 '봄마켓'을 이어간다. 주차별로 △1주차(18, 19일)는 3km의 양재천을 함께 뛰는 '양재천 커피런' △2주차(25, 26일)는 명상전문가와 함께하는 '양재천 봄꽃 명상' △3주차(5월 2, 3일)는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살롱 놀이' △4주차(5월 9, 10일)는 해외대사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워크' △5주차(5월 16-17일)는 양재천길의 시그니



서초구 양재천 일대에서 열린 '양재아트살롱' 벚꽃마켓에 방문객들이 몰리며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 서초구

처 티를 체험하는 '스프링 티 브렌딩' 등 각기 다른 테마로 구성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됐다. 리사이클링 자동차 조형물에 주민들이 이르고 싶은 소원 쪽지를 매는 '소원을 담아 달리는 자동차'가 전시되고 서초문

화원의 야외 조각전과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별빛 산책길'도 운영된다. 문화기획사 무브컬처와 양재천길 상가변영회가 협업한 '살롱그라운드'에서는 독서요가·음악 등 개인 취향에 맞춘 참여형 모임이 상시 진행 중이다.

양재천 일대 수변공간도 재정비됐다.

양재천과 여의천 합류부에는 길이 26m 규모 집라인을 갖춘 체험시설이 조성됐다. 네트놀이대와 그네 등 놀이시설이 추가돼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근 양재천 수변장도 '봄봄놀이터'로 운영되며 어린이 이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 종로구, 봄맞이 어린이시설·보호구역 점검

서울 종로구가 봄철을 맞아 어린이시설 공사 현장과 초등학교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6일 종로구에 따르면 전날 청운별빛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과 상명대부속초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상태를 확인했다. 어린이와 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다.

먼저 청운동 7-13번지 인왕산 근린공원 청운지구에 조성 중인 청운별빛어린이집 신축 현장에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1983년 문을 연 청운별빛어린이집은 지난해 43년 만에 신축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 부지는 공원으로 꾸미고, 바로 옆 부지에 새 어린이집을 세워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다.

구는 2019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유지 확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계 용역 등을 거쳤다.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이달 중 공사를 완료하고 5-6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마무리한 뒤 7월 이전을 완료한다.

하반기에는 기존 건물 철거와 공원 조성까지 완료해 지역 환경 개선 효과도 도모할 예정이다.

연면적 575㎡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추후 원아들의 전일적 발달과 교사의 전



종로구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문현(오른쪽) 구청장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

## 어린이집 신축부터 보호구역까지 집중 관리 제한속도 20km 이하 등 교통안전 개선 추진

문적인 지원을 위한 공공보육시설로 운영한다.

이어서 구는 상명대부속초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대상지를 점검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교체 및 노면표시 수정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도로 재포장, 열로카펫 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정문현 구청장은 "관내 곳곳의 어린이 시설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학부모와 원아,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 관악구, 외부재원 115억 확보 민생·안전 사업 추진 속도 낸다

서울시 관악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총 114억80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민생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보수,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 현안 사업' 분야와 서울시·자치구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구 공동협력 사업' 분야로 나누어 투입된다.

지역 현안 사업 분야에서는 구가 건의한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립예지어린이집 재건축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교부금을 투입한다. 구립예지어린이집의 경우 난곡동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해 안정적인 국공립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원아,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고효율 설비와 친환경 자재를 적용해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쓰인다. 구는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로 조원·삼성·보라매·청통·남현동 등 관내 경사지와 언덕길 6개소 1230m에 강설 대책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고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통수 확보' 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구 공동협력 사업의 경우 '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른 '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구 공동협력 사업' 분야로 나누어 투입된다.

지역 현안 사업 분야에서는 구가 건의한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립예지어린이집 재건축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교부금을 투입한다. 구립예지어린이집의 경우 난곡동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해 안정적인 국공립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원아,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교세는 '7개 초등학교 일대 안전 통합학로 조성'과 '도립청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